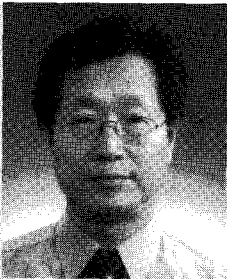


기술개발 투자, 업계 선두 유지

고객감동 실현, 수입대체 효과 거둬



김 병 화
울림정밀공업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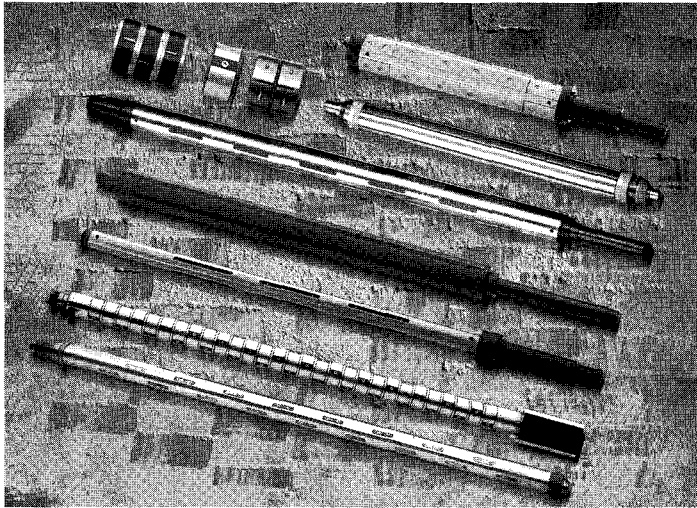
제품의 권취, 권출(unwinding & rewinding)시 core를 이용해 종이, 필름, 섬유, 알루미늄 호일, 부직포 등의 원단을 감거나 풀 때 사용되는 에어샤프트(air shaft)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쇄기, 합지기, 라미네이팅기, 슬리터기 등 각종 기계산업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다.

Air shaft 사용 이전에는 con type 혹은 기계식 SHAFT를 사용했지만 진원, 진직도 및 피칭, 로링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shaft 자중의 과다중량으로 인해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20~30개의 Air shaft 업체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업계에 독보적으로 Air shaft를 공급하며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울림정밀(대표 김병화)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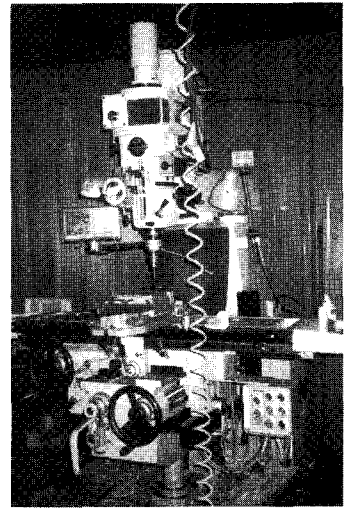
지난 1986년 현재의 부천 춘의동에 울림정밀 공업사로 설립된 울림은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조건에 맞는 고품질의 완벽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계의 종류 및 사양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1986년 이전, 거의 대부분의 Air shaft가 수입으로 대체되고 있던 때, 울림정밀은 기계제작업체로부터 Air shaft 개발 의뢰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국산대체를 위한 기술 개발에 돌입, 86년 개발을 계기로 최초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

현재, LG, 한솔, SKC, 유한킴벌리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4,700여군데에 Air shaft를 공급하고 있는 울



▲ Air Shaft를 비롯한 울림정밀공업사 생산제품



▲ 생산설비

림은 원단 품질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주문사양에 맞춰 유저(user)와의 협의를 통한 기술개발을 하는 등 16가지 타입의 Air shaft를 개발,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울림의 제품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1993년 '포장용 합성수지 필름 권취용 로울러 코어'에 대해 의장특허를 등록했으며 94년 코어 고정용 '에어샤프트의 리그' 의장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쇄된 포장용 포장지의 개폭후 권취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 '권취용 지관 고정장치'와 '권취용 지관 탈장착용 샤프트 공정장치' 권

취용 지관 탈장착용 샤프트 이동장치' 등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에 성공했다.

울림의 제품가운데, Air Friction Type(YR-700)은 기존 외국산 제품에 비해 튜브가 내장돼 있지 않아 보수유지가 거의 불필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발명특허를 얻은 이 제품은 현재 울림이 독보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으로 지난 94년부터 개발에 착수, 유럽 수출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아 호평을 받고 있다.

YR-700은 중심축에서 각 코어(core) 마디마디에 주입되는 공기의 압력으로 Friction 양을 조절할 수 있어

균일한 Torque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교체작업이 용이하다.

여느 업체나 마찬가지로지만 업계 독보적인 업체의 모방품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 Air Shaft 업계의 선두주자인 울림 역시 난무하는 카피(copy) 제품들이 속출하게 됐다.

정품을 사용해 개발되는 울림의 제품은 카피 제품이나 동종업계에 비해 가격단가가 센 것이 당연할 터, 그러다보니 처음 영업을 할 때는 제품의 품질보다 단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품질로 승부한다'는 울림의 경영방침이 낳은 고품질 제품

Yul-Rim

과 철저한 A/S는 소비자들의 신용을 쌓는 계기를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거래처의 증가를 가져왔다.

울림 이소형 이사는 “기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윤의 추구’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장인정신을 갖고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품 카피(copy) 문제를 지적했다.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울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고맙다고 밝히는 김병화 사장은 직원 개개인을 배려하는 등 직원 복지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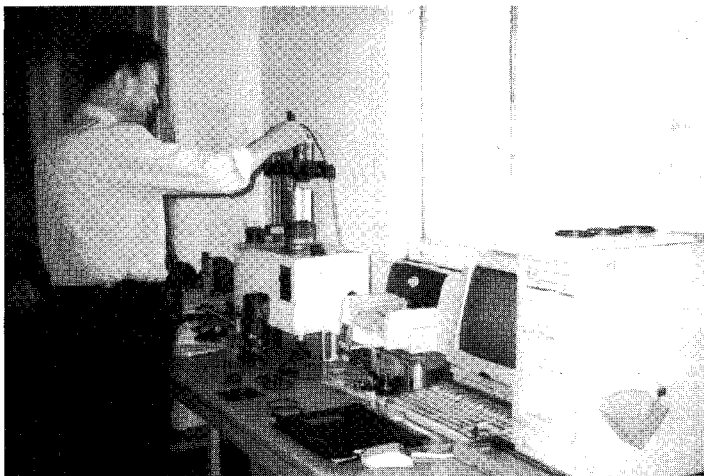
울림은 올해 말, 근로자의 편의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및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우수 업체들이 울림의 기술에 대한

신뢰로 개발 의뢰를 해 올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는 김병화 대표.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이 개발 부분에 투자하지 않는 현실에 반해, 울림은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을 개발비로 할애하면서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품질향상, 공정개선, 원가 절감을 통한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압출 또는 제지 공정에서 인쇄, 코팅, slitting에 이르기까지, 생산력 향상을 목표로 winding speed가 초고속화 돼 갈 뿐 아니라 원단의 종류도 다양한 사양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고 밝히는 김병화 대표.

앞으로도 울림은 지난 17년간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제품을 생산해 국내 산업안전재해에 도움을 주고 업계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



▲ 울림정밀공업사 개발실 현장

박초혜 기자